

“인생이란 자기 삶을 혁신하는 것... 원동력은 글쓰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김용택 시인 강연

구순 앞둔 노모 글 배운 뒤 ‘새로운 삶’ 아홉살 아이들에게서 ‘진심의 힘’ 배워

‘섬진강 시인’ 김용택(67)은 말했다. 글을 전혀 모르는 어머니, 개념 없는 초등 학교 2학년생들이 자신을 가르쳤다고. 그 가르침은 바로 ‘삶이 공부라 되어야 한다는 것(사는 게 바로 공부라는 것)’, ‘진실과 진실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 그리고 ‘늘 새로워지는 것’이다.

김용택 시인이 28일 라마다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주최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강연했다. 첫 주제는 지난 27일부터 KBS ‘인간극장’에 출연중인 율해 여든 일곱살 어머니 이야기.

“어머니는 삶이, 살아가는 게 곧 공부였다. 우리 어머니는 자연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었다. 봄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개밭으로 달려가야 할 때는 언제인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과 생태를 정확히 파악한 거다. 어머니 삶은 또한 예술이기도 했다. 어머니의 눈과 발, 넘어놓은 호박은 다 찍으면 예술이 된다. 우리도 삶이 공부라 되어야 퇴직을 하고도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김 시인은 어머니의 가르침은 세 가지였

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늘상 ‘사람이 그러면 못쓴다’ ‘사람이 그러면 쓰간다’ 하셨다.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한 인본주의인 거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돈을 중시하면 정신이 사라진다. 그러면 배가 뒤집히고, 닭개가 내려 앉는다. 또 하나는 ‘싸우야 큰다’였다. 싸우면서 드러난 단점을 잘 파악해 보충하면 발전한다는 의미다. 마지막이 ‘남의 일 같지 않다’다. 언젠가는 저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다.”

여섯 남매 잘 키워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영치빠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일을 하던 어머니가 몸이 딱 때어 있으니 답답해 했다. 어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김 시인의 아내가 녹음을 해줬다. 이젠 뭐, 다 시고, 소설이고, 역사였다. 숙제를 내줬다. 제일 좋았을 때와 제일 예쁜 걸 말해봐라. 글씨를 쓸 줄 모르는 어머니를 위해 당신이 이야기한 내용을 아내가 먼저 쓰고 그대로 베껴게 했다. 빼빼빼돌 어머니는 글을 썼다. ‘나는 용택이

선생 된 때가 켈로 좋았다’, ‘달이 흰하 떴을 때 우리 집을 보면 집이 그렇게 이뻐다’ 이번엔 살고 비단 조각을 주었다. 수를 놓기 시작했다. 눈에서, 발에서, 산에서 보았던 온갖 것들을 수놓았다. 상보도 만들고 여섯 남매 위한 이불도 만들었다.

“여러분도, 여러분 어머니도 저 길을 거쳐야한다. 저 나이를 피할 수가 없다. 글씨를 쓰고, 수를 놓던 어머니가 책을 읽기 시작하더라. 여든 일곱 어머니는 병원에서 자기의 삶을 확 바꿨다. 난 그게 기억적이고 생각한다. 인생이라는 건 자기 삶을 혁신하는 것이다. 혁신이란 자기를 바꾸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두번 째 주제는 38년 초등학교 교사 재직 시절 중 26년을 가르쳤던 초등 2년생들 이야기. 10가구가 밖에 안되는 터라 3명을 가르친 적이 많았다. 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도 모두 가르쳤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동시에 배운다. 사는 게 공부니까.

“이 개념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직과 진실이 통하는 세상을 배웠다. 아이들은 두려움과 부러움이 없다. 마음을 주면 마음을 받았다. 진실이 통하면 진지하게 되고 그 안에 진정성이 있다. 아이들은 남마다 새로워진다. 아이들은 모든 게 새롭고 신비롭다. 어른들은 신비로움을 잃어버렸다. 변화와 혁신은 말뿐 새로움이 없다. 새롭고 신비로우면 감동이 오고 그 감



28일 라마다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주최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김용택 시인이 글쓰기의 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동이 스며들어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다. 어른들은 생각을 안 바꾼다. 행동을 안한다. 결국 구태연하고 지루하고 고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다.”

시인은 글쓰기를 권유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세히 보는 사

람이다. 글쓰기는 삶을 도와주고 일하는 걸 도와준다고 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자세히 보다 보면 잘하게 된다. 이게 글쓰기다. 아이들에게 자기 나무를 하나씩 정해주고 거기서 일어나는 걸 쓰게 하면 수많은 이야기들을 글로 쓴다. 하나를 자세히 보면 다른 것도 눈에

된다.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게 되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런 지식은 내 것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다. 인간을 귀하고 소중한 거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공감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 변화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받아들이는 힘을 키워주는 게 바로 글쓰기다.”

/김미은기자 mekim@

인애동산 설립 김인제 회장 별세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설립자 김인제 회장이 2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김 전 회장은 지난 1953년 전정고아를 위해 광주시 남구 용대로 91(봉선동)에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을 설립해 가장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금까지 복지사업에 헌신했다. 김 회장은 28세 때부터 전정고아를 본인 집으로 데려와 보호하며 60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전진해왔다. 특히 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한 그는 유아교사 출신 보육교사를 채용해 교육에 전념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미혼모시설을 설립해 약 2500명이 사회에 복귀하는데 기



여했다. 이후 복지관부설 장애인치과의를 개설하면서 약 7000명을 무료치료했다.

김 회장은 세계평화센터 한국대표, 한국종합사회복지관협회 광주지회장, 남구자활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한민국 국민훈장감사패(1992년) 등을 수상했다. 김 전 회장의 빈소는 광주 서구 천치장례식장 202호 실이며, 발인은 31일 금요일이다. 문의 062-653-0369. /양세열기자 hot@

프로골퍼 이봉철의 ‘맞춤 골프’ 강연

신세계계보, 12월 6일~2월

프로골퍼 이봉철(57·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씨가 골프 강연에 나선다.

이 처장은 오는 12월6일부터 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광주신세계 아카데미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골프 맞춤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골프의 스윙원리와 메커니즘 등 순수운동 측면과 골프 스포츠의 인간 심리, 멘탈 등 인문학 측면을 함께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순수운동은 골프 중 신체 부상을 방지하는 방법과 체력증진을 위한 스윙관련 기술로 이뤄졌다. 연습과 훈련을 위한 예비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쉽게 타격하는 원리·기술을 가르친다. 특히 골프에 대한 지식 오류 및 필드 현장과 골프 연습장의 차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전파할 예정이다.

이씨는 프로골퍼이자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서 31년 근무한 직장인으로서 경험을 살려 대중화되고 있는 골프의 품격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 강의를 흔쾌히 수락했다.

이씨는 “운동 측면의 골프와 인간관계로서의 골프에 대한 여러 가지 담



론과 철학을 공감하고 시민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의 신청은 11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광주신세계 9층 아카데미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shinsegae.com)으로 하면 된다.

체육학 박사이기도 한 이씨는 ‘I love MFS’ 프로구단 소속 프로골퍼로, ‘필드에서 이기는 골프’, ‘골프독학의 모든 것’ 등 다수의 골프관련 서적을 출간했다.

/임홍룡기자exian@kwangju.co.kr

임권택 감독, 싱가포르국제영화제 평생공로상

임권택 감독이 오는 12월 열리는 제25회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서 평생공로상을 받는다.

29일 영화제 홈페이지에 따르면 임 감독은 영화제가 올해 신설한 평생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영화제 측은 임 감독이 ‘두만강이 잘 있거라’(1962)로 데뷔한 후 지난 50여 년간 100편이 넘는 영화를 만든 한국 현대영화 거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영화 발전에 끼친



공로를 인정해 첫 평생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로상 시상과 함께 임권택 감독 특별전도 열린다. 대표작 ‘만다라’(1981), ‘안개마을’(1982), ‘화장’(2014)이 상영된다. 영화제는 오는 12월 4일~14일 열리며 시상식은 13일에 진행된다.

/연합뉴스

호남통계청, 화순 만연초 통계교실 개최



28일 화순 만연초등학교에서 열린 호남지방통계청(청장 백만기) ‘2014 어린이 통계교실’에서 학생들이 과자 속 동물 숫자 세기 놀이를 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축

- ▲박승규·박춘난씨 장남 종철군 박종수(농협 전남지역본부장)·김영순씨 장녀 우주양=11월 1일(토) 오전 11시 홀리데이인호텔 3층 로즈홀
- ▲전명숙씨 장남 양승열군 박문수(한국화 화가)·조숙희씨 차녀 희승양=11월 1일(토) 오전 11시 제이에스J웨딩컨벤션 3층 그레이스홀.
- ▲김갑제(무등일보 주필·광복회 광주 전남지부장)·김영씨 아들 대돈(우리은행)·김종현·정숙희씨 딸 선화(우리은행)양=11월 1일(토) 낮 12시 30분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4층 대연회장.

동창회

- ▲광주대 총동창회(회장 장운환) 친선 축구대회=11월 1일(토) 오전 9시 광주대 축구장 010-6638-5578.
- ▲광주승의고등학교(회장 최경재) 한마음체육대회=11월 1일(토) 오전 9시 모교운동장.

알림

- ▲가족과 함께 하는 김장김치 맛있게 담그는 법=김옥심 명품김치가 주관하는 김치체험 11월 30일까지 광주시 남구 봉선2로 87 학생과 일반인 등 사전신청 후 누구나 참여 가능 문의 062-682-5008.
- ▲광주신세계회장장남감도서관 자유늘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늘어מות 조성을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치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

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 양육상담 062-264-4370, 5308.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모집

-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봉사자=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신 분 062-233-0468.
- ▲함께 안아주세요! 함께 키워주세요! 가정위탁!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 ▲광주여성보호모니터링단(지휘 이준

회원=클래식음악을 좋아하는 광주지역 거주 여성, 매주 월·목요일 오후 2~4시 광주문화예술회관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실 016-604-1918(회장), 010-4416-9883(총무).

▲농성문화의 집 오전요가 수강생=균형있는 몸매와 정신을 맑게 깨우는 요가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매주 화·금, 오전 9시 30분~10시30분) 062-362-2072.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 음택, 수택, 명당 무료 강의(책자무료제공) 8월23(토) 오후 1시 30분~5시, 광주대 호심관 7층 (707호) 문의 010-3609-8117.

▲광주·전남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및 보조출연자=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062-674-4008-9.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힘나는 학습클리닉’=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습관과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힘나는 학습클리닉’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62-268-1388.

▲살레시안 가족합창단(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 초·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합창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부부 중 한분이라도 동문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상무중학교(운천저수지 옆) 010-3404-3712(단장).

부음

- ▲김인제씨 별세 동족(인애동산 대표이

사)·미경(인애복지원 원장)·미형(인애W 재가노인지원센터 원장)·주화(인애어린이집 원장)·현지(인애시니어W센터 원장)씨 부친상=발인 31일(금) 광주 서구 천치장례식장 202호 062-653-0369.

▲김우현씨 별세 미경(서울대 교수)씨 부친상 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씨 장인상=발인 30일 여수장례식장 2층 VIP 2호실 061-688-4444.

謹 上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101호 故최민숙 님(여/86세) 子/子婦: 김기원/최정숙, 김기민 女/婿: 김미숙/문호철, 김미자 姪: 김철수, 김철민, 문영민 •발 인: 10월 31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102호 故이민철 님(남/62세) 子/子婦: 이강민/조민아, 이강철 女/婿: 이재숙/안민철 姪: 이영호, 안도환, 안영도 •발 인: 10월 31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201호 故윤순남 님(여/83세) 子/子婦: 황우원/이명주, 황세민/장연숙 夫君: 황화순 女/婿: 황명자/이옥재, 황진숙/이윤호, 황영숙/박정현 •발 인: 10월 30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1	402호 故송문기 님(남/100세) 子/子婦: 송종용, 송종만/세연순 女/婿: 송상순/김영만, 송성식/박주환 •발 인: 10월 30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